

2020년 11월 5일

교구 여러분

대주교 마에다 만요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조치(9 차)

+ 주님의 평화

11 월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준비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을 직면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일본 방문 1 주년을 기념하여,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팬데믹 이후의 선택'과 '형제 여러분'의 부름에 부응하는 생활을 함께합시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과 관련한 차별이나 배제를 하지 않는다][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마스]로 코로나 종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해 별지와 같이 주교협의회에서 '가톨릭교회의 새로운 감염증 발생 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오사카 교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구 전체에 대한 권유이므로, 실제로 어떠한 대응을 할지는, 각 소교구·시설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상황은 가이드라인 2~3 페이지의 '④ 국내 감염증의 유행 지속'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이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성사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의 4 페이지 이후의 [별첨: 코로나 19 감염증 하에서의 성사, 전례 거행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각각의 장소와 상황에 맞게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이어서 주일과 지켜야 할 축일(주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참여할 의무를 교구 내의 모든 분을 대상으로 면제합니다.

3. 미사와 같은 집회의 수용인원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발표에서는 [추천 범위 2m, 최소 1m]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는, 수용 인원수까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환기가 어려워지는 겨울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용 인원수의 반정도까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4. 가이드라인에는 [성체를 입으로 모시는 것을 자제](p.3) 하고 [신자에게 서서 손으로 성체를 모시도록 협조를 요청한다](p.5)고 되어 있으나, 입으로 받아 모시기를 원하는 신자를 위해 사제와 사전에 상의한 후 마지막으로 성체를 분배하거나 미사 후에 따로 성체를 분배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일, 감염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미사나 집회 참가자의 정보를 파악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 취급에 주의하며, 추후(약, 2 주 후를 기준) 파기해 주십시오.
 6. 교회활동에서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건소에 통지하고 지시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목책임자를 통해 교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외 발표는 필요에 따라 교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누구나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관계자가 감염되었을 경우는, 본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분히 주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대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가 장기화되고 종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 활동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배려를 계속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며, 모든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 *교구 공지사항(9 차)의 주요 외국어판은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